

해외 ICT 표준화 동향

2016. 5

2nd Week

목 차

■ 본문

1. 유럽위원회, 유럽 e-정부 액션 플랜(2016-2020) 발표
2. 유럽연합, DSM의 ICT 표준화 우선순위에 오픈소스 제외

■ 기타소식 6 쪽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게시물 보기 : TTA 홈페이지 ▷ 자료마당 ▷ TTA간행물 ▷ 표준화 이슈 및 해외 동향

1. 유럽위원회, 유럽 e-정부 액션 플랜(2016-2020) 발표

(European eGovernment Action Plan 2016-2020)

보도날짜 2016.04.25.

출 처 EC(유럽위원회)

사 이 트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european-egovernment-action-plan-2016-2020>

※ <https://ec.europa.eu/digital-single-market/en/news/commission-publishes-reports-egovernment-and-standards-public-consultations>

- 2016년 4월 25일, 유럽 단일시장 전략의 주요 성공요인은 정부의 디지털 변환으로, 디지털 장벽과 국가행정 현대화에서 일어나는 분열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정부(eGovernment) 액션플랜 2016-2020”을 발표함
 - 공공 서비스에 접속 또는 사용을 촉진하는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지난 ‘전자정부 액션플랜 2011-2015’을 마련함에 이어, 오늘날의 정부는 단순 기술 이외에 시민, 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이에, 유럽위원회는 2015년 10월 30일부터 12주간 디지털 단일시장 전략 중 전자정부 액션플랜과 관련한 공개자문으로 유럽 전자정부 서비스와 공공 행정기관에 대한 시민 및 기업의 요구사항을 수집함
- “전자정부(eGovernment) 액션플랜 2016-2020”은 ①공공행정 현대화, ②디지털 내부 시장 달성, ③시민과 기업에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목표로 함
 - 액션플랜은 빠르고 저렴한 전자정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유럽연합의 협력 및 조정으로 회원국과 위원회에서 공동 노력을 기울일 것임
 - 전자정부 액션플랜 마련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 ① 주요 디지털 지원 기술(CEF DSI, eID, e서명, e배달 등의 기술 구성요소)을 이용한 공공행정 현대화
 - ② 국경을 초월한 상호운용성 이용으로 시민과 기업의 이동성 증가
 - ③ 고품질 공공서비스를 위해 시민/기업과 행정 간 디지털 상호작용 촉진
 - 액션플랜은 즉시 시행할 20개 조치를 마련하였고, 추후 기업과 시민, 공공행정이 함께 새로운 조치들을 제안하고 실행할 예정임(2016년 6월, 온라인 이해관계자 참여 플랫폼 진행 예정)

2. 유럽연합, DSM의 ICT 표준화 우선순위에 오픈소스 제외

(Anti-innovation: EU excludes open source from new tech standards)

보도날짜 2016.04.20.

출 처 arstechnica UK

사 이 트 <http://arstechnica.co.uk/tech-policy/2016/04/anti-innovation-eu-excludes-open-source-from-new-tech-standards/>

- 유럽위원회(EC)는 디지털 단일시장(DSM) 전략을 통해 유럽 산업, 중소기업(SMEs), 연구원, 공공기관의 최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함
 - 디지털 단일 시장을 위한 'ICT 표준화 우선순위'에 따르면, 공개 표준(Open standards)은 문화적이고 교육적 콘텐츠인 미디어를 포함한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장벽을 낮추고 기술 혁신을 촉진시킴
 - 이에, EC는 기술혁신 강화를 위하여 5G,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기술, 사이버보안의 5개 기술에 대한 신규 표준 개발의 추진을 강조함
- 그러나, EU는 FRAND 라이선싱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이지만, 오픈소스 코드는 아래 라이선싱 요구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여 제외함
 - 통상적으로 FRAND 라이선싱*은 문서 당 수수료 지불이 요구되나, 무료 소프트웨어는 몇 번이고 공유가 가능하여 얼마나 많은 복사본이 배포되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오픈소스 코드는 이를 책정하여 지불을 요구하지 못함
 - * fair(공정), reasonable(합리적), non-discriminatory(비 차별적)의 약자
- 2004년, EU의 범유럽 전자정부 서비스를 위한 유럽 상호운용성 프레임워크(EIF, European interoperability Framework) 발표에서도 위 'ICT 표준화 우선순위'처럼 소프트웨어를 제외하면서 유럽을 넘는 세계로의 호환성을 목표로 함
 - 수수료가 없는 로열티 프리(Royalty-free) 라이선싱은 오픈소스(및 독점코드)를 호환 가능토록 하나, 이는 유료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대형기업에 맞지 않았고 이런 기업의 로비 압력이 유럽위원회의 입장을 FRAND로 바꾸는데 일조했음
 - 2010년 발간된 EIF 버전2에서 볼 수 있는 로열티 프리 요구에서 한발 물러난 FRAND로의 이동이 이번 유럽연합의 "ICT 표준화 우선순위(EIF 버전 3)"로 최종 완성되면서, EU 표준 개발 기술 순위에 오픈소스가 완전히 사라지게 됨

기타 소식

TSDSI, m2m2iot 포럼 2016 개최

- ▶ 출처 : <http://www.tsdsi.org/event/65/> (2016.04.22.)
- 2016년 4월 22일-23일, TSDSI(인도표준개발기구), TCOE 인디아¹⁾, m2m2iotpaper.com 은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m2m2IoT 포럼 2016”을 합동 개최함
- 본 포럼에서는 m2m/IoT 혁신가, 제조업자, 전달자 등이 서비스 제공자와 정책결정자들과 “서비스 기반 m2m/IoT 관리 및 구현 표준” 관련 이슈들을 공유함

1) TCOE 인디아는 인도에서 글로벌 ICT 및 통신 회사의 초기 단계로 육성되었음. TCOE 인디아는 정부, 산업, 벤처캐피탈, 엔젤들보다 먼저 고유의 발전된 ICT 기술을 선보인 인도 혁신가들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였음